잡학서고 지식의 기록

쓰기 편한 화면을 가늠하는 열 가지 잣대, 닐슨의 사용성 휴리스틱(10 Usability Heuristics for User Interface Design)

원문 주소

https://www.gklibrarykor.com/11394/

PDF 미리보기 · 이 글의 일부 내용입니다.

새로 내려받은 앱을 처음 열었는데 버튼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우리는 한 번 더 누를지, 기다릴지 망설이게 됩니다. 실수로 지운 사진을 되살릴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도 금세 답답해집니다. 이렇게 쓰기 불편한 화면에는 공통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? 이 물음에 열 가지 기준으로 답한 것이 바로 '닐슨의 사용성 휴리스틱(10 Usability Heuristics for User Interface Design)'입니다. 닐슨의 사용성 휴리스틱이란 쉽게 말해 '사용자가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화면인지 가늠하는 열 가지 경험 법칙'을 의미합니다. 휴리스틱은 꼼꼼한 세부 지침이 아니라 대략적인 길잡이라는 뜻입니다. 덴마크 출신 사용성 전문가 야코브 닐슨(Jakob Nielsen)이 1990년 롤프 몰리치(Rolf Molich)와 함께 처음 만들었고, 1994년에 다듬은 목록이 지금까지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. 본 자료에서는 이 휴리스틱이 생겨난 배경부터, 열 가지 원칙의 내용, 일상에서 찾아보는 예시, 그리고 이를 활용한 평가 방법과 한계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. 쓰기 쉬운 화면의 열 가지 기준 휴리스틱 평가의 탄생 사용성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제 사